

자유의 역설 (The Paradox of Freedom)

빔 리트케르크 (Wim Rietkerk)¹⁾²⁾

성기진 옮김

올해를 루터를 기념하는 해이다. 정확히 500년 전인 1517년,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박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프로그램을 알렸다. 이것이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개혁자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의 공적인 대립은 1521년 보름스에서 개최된 제국회의(라이히스탁)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그 자리에는 교황과 황제가 모두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루터는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철회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경적 자유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극단적인 시인과 극단적인 부인의 역설적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장면에서 우리는 교황과 황제 등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엄청난 외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 사람을 본다. 나는 당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자유의 표현이다.

1520년에 루터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문장에서 그는 또 말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 그는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쓴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실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루터는 보름스의 라이히스탁에서 그의 삶을 통해 이것을 보여 주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역설을 설명하고, 우리가 자유의 역설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열쇠를 제시하려고 한다.

- 1) 네덜란드 라브리 대표이며 20여년간 국제라브리 회장을 역임했다. 위트레흐트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과 세계관을 심어 주려고 노력했고, 그 공로로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 2) 이 글은 저자가 2017년 1월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작한 번역본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에 게시한다.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자유의 역설: 간단한 설명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역설은 구약에서도 핵심 메시지이다. 십계명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서론을 빼놓고 읽는데, 십계명은 단지 우리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다. 서론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파라오도 너희에게는 주가 아니다. 오직 내가 주이다.”라고 선언하신다. 그 후에야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신다. 십계명은 모두 이러한 자유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로운 독립국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의 역설을 엿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유로우면서도 매여 있는 나라였다.

신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참 주님과 관계는 다른 모든 신(우상)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궁극적인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수록 우리는 궁극적이지 않은 세상의 이차적 힘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루터 시대의 교황과 황제처럼 아무리 위압적으로 보이더라도 말이다.

좀더 이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경적 자유는 매임의 한 형태이다. 잘 알려진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고기는 그의 자연적인 서식지인 물 속을 헤엄치는 한 가장 자유롭다. 그러나 그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한다고 물로부터의 자유까지 준다면 그는 죽고 말 것이다. 제한 없는 자유를 찾아 헤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은 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는 물고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존재이다. 너무 얇거나 오염된 물에서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유도 맑고 건강한 물에서 헤엄칠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된다.

자유의 역설을 잃어버린 시대

오늘날의 문제는 자유의 역설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루터의 반항적 행위를 동경하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공산 치하의 동독에서 이런 해석이 유행했으나, 서유럽에서도 이런 일방적인 자유의 개념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의회에는 75세 이상으로서 죽음을 원하는 누구든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사람도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른다. 네덜란드의 사회 분위기는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한다.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세계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주옥같은 메시지들도 우리는 일방적인 자유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고 있다. 만약 이런 해석이 승리한다면 서양 문화는 예술가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공허함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레너드 코헨의 “전선 위에 앉은 한 마리 새처럼”이나 재니스 조플린의 “자유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일 뿐이다!”라

는 말을 들어 보라. 성경적 자유는 자유와 매임의 역설적 조합인데, 매임 없는 자유만을 추구해 온 서양 문화는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동양 문화는 여전히 정반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동양의 옛 선생들은 항상 질서와 복종,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네덜란드 라브리르를 찾아온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 자란 어른인데도 자신의 직업과 결혼할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터는 당대 최고의 권위를 거부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닌 자유인이라고 말했다.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 동양에서는 이 균형이 반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낮은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루터가 교황과 황제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했듯이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자유 역설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한국은 형식에 치우쳤으나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형식 없는 무분별한 자유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부분에서 소개할 성경적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열쇠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36)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나눈 이야기의 끝 무렵에 나타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의 말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을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들은 자유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소유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일종의 물건, 상태, 또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되물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들은 심지어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자세는 오늘날에도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막아서고 방해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이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오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자세를 마주하실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가?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반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니?”

주님은 우리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지적하실 것이다. 너희가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어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느냐? 어쩌서 너의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하느냐? 직장 생활에서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네가 진정 자유롭다고 믿느냐? 자유는 자유롭게 함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매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는 동사(verb)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걱정을 가져가시고 우상을 부수신다. 그분은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로워지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열쇠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동양인들에게 전하라: 그분은 최고의 권위이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보다 낮은 모든 권위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여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루터와 같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종의 자리에서 아들딸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

서양인들에게 전하라: 절대적 자유와 지속적 진보의 허상을 따르지 말라. 망가진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우리의 연약함과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에 의지하라!

독일의 철학자 이사야 베를린(Isaiah Berlin)은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를 구분했다. 서양은 소극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예 제도, 문맹, 미신, 무지와 같이 자유로운 선택과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이와 다르다. 적극적 자유는 동기 부여와 내적 열정에 주목한다. 나는 왜 내가 하는 것을 하는가? 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와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나의 신념을 따라 살고 있는가? 소극적 자유는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가능성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넓은 선택의 폭은 적극적 자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결론

1. 자유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자유이기도 하다.

형식이 없이는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물고기를 보자. 그는 물이라는 형식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이 학회에서 우리는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세계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해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 이 물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물을 벗어난 자유는 우주선으로부터 끊어진 우주 비행사와 같다.

2. 자유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무언가의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이다.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걱정과 거짓말, 잘못된 관계 등 우리의 참된 자아를 계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내적 장애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망가지고 슬픈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 진정한 자유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나 압도당하지 않으며, 절망으로 치달아 가도 버려지지 않으며, 슬한 공격을 당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고백으로부터 나온다 (고린도후서 4:8).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보다 낮은 모든 권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준다.

3. 자유는 과정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미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발을 헛디디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쪽은 서양 문화의 공허한 지루함이고 다른 쪽은 형식만을 갖춘 동양의 율법주의이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감히 홀로 서라. 감히 견고한 목표를 가지고, 감히 그것을 세상에 알려라.” 성경적 자유의 열쇠는 예수님과 그의 힘이다. 성경적 자유의 모범사례는 마틴 루터이다.